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9
----------	------

발의연월일 : 2024. 8. 29.

발 의 자 : 이건태 · 이기현 · 한준호

황정아 · 박지원 · 박지혜

곽상언 · 박균택 · 이수진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재판서 등의 작성) ①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38조의2(재판서 등의 작성) ①</u> <u>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u> <u>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u> <u>여야 한다.</u></p> <p><u>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u> <u>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u> <u>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u> <u>으로 제공할 수 있다.</u></p>